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 다각적 진료로 원인 찾아야

건강 바로 알기 임파선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준희 교수

#. 40대 회사원 A씨는 몇 주 전부터 반복되는 목에 부은 임파선으로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흔히 주변에서 면역 능력이 떨어져 일시적으로 생긴 혹이라는 말을 듣고 방심한 것이 화근이었다. 다행히 영상 검사 및 조직 검사에서 암은 아니라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 60대 교사 B씨는 우측 목에 만져지는 임파선 혹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후두암이 목으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 대기 중이다.

◇임파선이란=우리 몸에 혈액과 비슷한 조직액(림프액)이 흘러 다니는 길을 임파관(림프관)이라고 하고, 임파관의 길목 곳곳에 있는 정류장 같은 곳을 바로 임파선(림프절)이라고 한다. 임파선은 림프절이나 임파절과 같은 말이며 한자식 표기이다. 임파선은 우리 몸 전신에 500~600여 개가 분포돼있고, 이중 3분의 1인 150~200개가 목에 위치하고 있다.

목의 임파선이 부는 원인은 크게 염증과

몸 전신에 500~600개 분포 ... 150~200개 목에 위치 부어 있다면 초음파·CT 통해 림프절의 상태 파악 중요

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내염, 편도염 등의 염증 질환이 있다면 해당부위 주변 림프절이 붓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입술 옆에 단순 포진만 생겨도 경우에 따라서는 턱밑에 위치한 임파선이 붓고 통증이 생기면서 턱밑 멍울이 만져진다. 이런 경우는 대개 휴식과 간단한 약물치료로 호전되지만 결핵성 림프절염, 기루치병, 바이러스성 림프절염 등 다양한 원인의 림프절염과 감별이 필요하다.

목에 임파선이 붓고 만져진다면 환자의 나이, 동반증상, 통증 유무 등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림프절이 만져지는 위치와 만져지기 시작한 시기를 의사가 파악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만약 우연히 거울을 보거나 샤워를 하면서 림프절이 만져진 것을 알았을 때, 그 증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조금 지켜볼 수 있지만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갑자기 커졌다고 하면 이 또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임파선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에 혹이 만져지는 위치이다. 흔히 목에 림프절이나 혹이 만져지면 갑상선암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병원 방문을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목에는 갑상선 이외에도 임파선, 침샘, 근육, 혈관, 신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갑상선만을 중

점적으로 체크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질환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부임파선 커지면 반드시 후두내시경 검사=우리나라는 갑상선암의 유병률이 높아 갑상선암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반면에 임파선에 대한 검사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부임파선이 커져 있을 때는 반드시 편도, 인두, 후두 등의 목 안쪽 상태를 후두내시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목의 림프절이 심한 통증 없이 붓는다면 악성림프종이나 경부 전이암 등의 가능성을 꼭 염두해야 한다. 경부 전이암의 경우에는 어떤 장기에서 연관돼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부 림프절 종대는 수개월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암이 아닌 경우는 증상을 추적 관찰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조건 항생제를 남용 또는 암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림프절이 커져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는 전문가가 만져본 후 초음파, CT 등을 통해 림프절의 크기, 위치, 상태를 파악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경부 초음파는 방사능의 위험이 없고 얼마든지 반복 검사를 할 수 있으며 1~2mm 크기의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해 임파선을 진료하는 모습.

〈조선대병원 제공〉

또한 피부에 흉터를 남기는 절개성검보다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한 바늘로 림프절 일부를 채취하는 조직 검사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염증으로 인해 림프절이 부은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면 대부분 증상이 자연히 좋아지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결핵으로 인해 목의 림프절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사실이 조직 검사로 확인되면,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 장기간 결핵약을 복용해야 한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준희 교수는 "목에 림프절이 오랫동안 부어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과 영

상검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한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면역계 저하에 따른 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신체를 다른 부분의 원인도 고려하는 세심한 진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청림 핫라인' 운영

'감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슬로건
감사실 직통전화로 각종 비위 제보 독려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상임감사와 직접통화 가능한 'CNUH 청림 핫라인'을 운영해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상임감사 이상길)이 기획한 청림 핫라인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적절하기 위해 상임감사실에 직접 제보 가능한 직통 전화를 운영하는 것이다.

청림 핫라인은 지난 16일부터 병원 직원만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설되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 및 통화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청림 핫라인 이외의 환자 및 내방객의

민원은 전남대병원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서 접수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부터 '감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는 감사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8·9월 중 5대 청렴문화 실천 캠페인을 두 차례 전개하기도 했다.

이상길 상임감사는 "청림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즉각 사실 여부를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비위행위를 적절해 가겠다"면서 "이같은 제도가 결실을 맺어 전남대병원이 보다 밝고 투명한 청렴 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5대암 빅데이터 센터' 선정

대장·폐·간·유방·전립선암 등
표준 임상데이터 구축에 앞장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진)이 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전립선암 등 5대 암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돼 관련 암종별 표준 임상데이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공모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센터'로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전립선암 등 5대 암종별 진단데이터·치료와 추적관찰 데이터 등 표준 임상데이터를 생산·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지정된 국립암센터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9

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암환자 대상의 빅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암 진단과 치료 결정,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등에 활용해 향후 효과적인 암 예방·진단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은 헬스케어 등 우리 사회의 10개 주요분야에서 거점역할을 맡을 센터를 선정,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대형국책사업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의 5대암 빅데이터 센터장인 민정준 의생명연구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암특화병원으로서, 국가 단위의 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도 증진과 암진료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병원의 정보전산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백내장 수술 장비 렌자 레이저 보라안과병원, 광주 최초 도입

노안·백내장 동시 해결

보라안과병원이 최근 백내장 수술 장비 렌자(LENSAR) 레이저를 도입해 첨단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선보인다.

렌자는 레이저 백내장 장비 중 유일하게 펄스초레이저와 3D 사임플러드 카메라가 결합된 장비로 광주에서는 보라안과병원이 최초로 도입해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기존 수기 방식에 의존한 백내장 수술은 의료진이 직접 칼로 절개한 후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반면 렌자(LENSAR) 레이저는 칼로 하던 모든 과정을 정밀한 레이저로 진행해 일관성된 수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각막 전안부 3D 촬영 장비인 Pentacam과 연동으로 수술 전 안내 조직과 미세한 안구 움직임을 16장이미지로 촬영한 데이터를 AR(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하고 개인별 눈에 맞춰 레이저 에너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황체 인식 안구 추적 기법으로 난시 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내부 조직이 손상되지 않는 섬세한 레이저 절개로 각막내피세포의 손상을 감소했다.

보라안과병원 강석준 원장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인공수정체의 삽입 위치 및 난시교정이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적의 수술 결과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더해진다"며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2018타경 8300, 경매물건. 투자하실 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월) (10:00)

2018타경 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토지면적	19835㎡ (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건물면적		보통금	(10%) 119,9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9-09-02	1,712,816,000원	유찰
2차	2019-10-14	1,198,971,000원	유찰

구분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1	월암리 62-12 준모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모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모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토지 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합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문의.010-6834-7400